

창간
 1981년 9월 14일

연세의료원소식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NEWS

제992호
 2026년 9월 21일

발행인 금기창 편집인 윤영남 T 02.2228.1074~5 F 02.2227.7783 severance@yuhs.ac

뇌졸중 위험 높지 않은 심방세동도 항응고제 치료가 합병증 낮춰

**주요 합병증 최대 90% 감소
 18개 기관 1803명 임상시험
 국제학술지 'NEJM' 게재**

뇌졸중 위험이 높지 않은 심방세동 환자도 항응고제 치료가 합병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대 정보영·유희태·김대훈 교수(내과학) 연구팀은 심방세동 환자 중 뇌졸중 위험이 중간 정도인 환자일지라도 항응고제 치료를 받으면 허혈성 뇌졸중이나 색전증 등 합병증 발생률을 최대 90%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 IF 84.5)' 최신호에 게재된 연구 결과는 지난달 2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6 유럽심장학회·세계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공개됐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다. 심장 안에서 피가 굳

어 피떡인 혈전이 생길 수 있는데,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흐르다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혈액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억제하는 항응고제를 사용한다.

심방세동 환자는 평가 점수(CHA₂DS₂-VA 점수)에 따라 뇌졸중 위험이 큰 환자와 중간인 환자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진료 가이드라인은 75세 이상이거나 뇌졸중, 전신색전증 등 병력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큰 심방세동 환자로 분류해 항응고제 치료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반면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혈관질환, 고령 등 뇌졸중 위험 요인이 하나뿐인 환자는 중간위험 환자로 분류해 항응고제 치료를 '고려'로 분류하고 있다. 중간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항응고제 사용 여부에 따른 치료 결과를 직접 비교한 임상시험이 부족해서다.

정보영 교수 연구팀은 중간위험 심

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항응고제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다.

연구팀은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을 비롯해 국내 18개 의료기관에서 뇌졸중 위험이 중간인 심방세동 환자 1803명을 모집해 무작위로 배정한 뒤, 902명(A군)에게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게 했고, 901명(B군)에게는 투여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24개월 동안 뇌졸중, 심장 등에서 생긴 혈전이 다른 혈관을 막는 전신색전증, 뇌 등 장기에서 발생하거나 수혈이 필요한 주요 출혈, 심장 등이 원인이 되는 심혈관계 사망 발생 여부를 관찰했다.

그 결과, A군에서 4명, B군에서 13명에게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 24개월 누적 발생률은 A군의 발생 위험이 B군 대비 69% 낮았다.

특히 허혈성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증은 A군에서 1명, B군에서 10명으



정 보 영



유 희 태



김 대 훈

로 A군의 발생 위험이 90% 낮게 나타났다.

항응고제 치료로 인해 우려되는 주요 출혈 누적 발생률은 두 군에서 비슷했으며, 심혈관계 사망은 양 군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치료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중간위험 심방세동 환자에서도 항응고제가 주요 출혈 위험을 뚜렷하게 높이지 않으면서 뇌졸중과 혈전색전증 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음을 무작위 임상시험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

가 있다.

정보영 교수는 "뇌졸중 위험요인이 하나뿐인 심방세동 환자도 항응고제 치료가 뇌졸중을 비롯한 주요 임상 사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연구가 중간위험 환자 항응고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이 주관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등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연세간호 120년, 세계와 미래를 잇다

**국제학술대회·기념식
 성황리에 마쳐**

간호대학이 창립 12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대회와 기념식을 열고 지난 1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미래 간호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다.

간호대는 지난달 20일부터 21일 까지 이틀간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2026 연세 국제간호학술대회(YINC)'를 개최했다. '120년의 유산: 과거를 기리고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26개국에서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에는 존스홉킨스대학교 사라 L. 잔톤 간호대학장, 에모리대학교 린다 A. 맥컬리 명예간호대학장, 시카고 일리노이대학교 김미자 명예간호대학장이 연자로 나섰다. 연자들은 간호교육기관이 사회 변화에 대응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성과를 정책과 현장에 확산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심포지엄과 세부 학술 세션, 대학원생 심포지엄(GSS)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국



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한 연구발표를 통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술 교류를 이어갔으며, 간호대학 JBI 협력센터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21일에는 창립 1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 금기창 의료원장,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 교내외 주요 인사와 국내외 동문 등 280여명이 참석해 연세간호 120년을 함께 축하했다.

이현경 간호대학장은 지난 여정을 함께해 온 동문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하고, 새로운 120년을 향한 비전인 'OPEN to ALL'을 제시했다. 사람 중심의 AI·데이터 기반 혁신과 글로벌 협력 강화, 연구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

며, 간호가 임상과 교육, 연구, 정책을 넘어 지역사회와 글로벌 보건 전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이채연 명인에듀 회장이 간호대학 발전기금 5억원을 기부해 뜻을 더했다. 간호선교 역사와 정신을 담은 기념도서 '간호선교로 세계를 잇다'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또한 '연세간호: 한국 간호교육 산 역사(1906~1967)'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근대 간호교육 발전을 이끌어온 연세간호의 발자취를 조명했다.

간호대는 창립 120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이어가고, 세계와 협력하며 새로운 120년을 열어가길 계획이다.

로얄기초산업 장용득 대표 장선영·장준영 이사 9억원



**연세암병원 발전기부금
 의대 유일한폐암연구소
 연구기부금**

(주)로얄기초산업 장용득 대표, 장선영·장준영 이사가 최근 9억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연세암병원 발전기부금 5억원과 의과대학 유일한폐암연구소 연구기부금 4억원이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장용득 대표와 심현덕 여사, 장선영 이사부부, 장준영 이사부부와 함께 금기창 의료원장, 이상길 연세암병원장, 윤영남 대외협력처장, 김진아 발전기금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장용득 대표는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을 겪으며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

던 기부를 실천할 수 있어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자녀들과 함께 회사를 꾸려가며 이렇게 좋은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이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후원이 암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폐암을 비롯한 암 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오랜 시간 일궈 오신 소중한 결실을 연세의료원과 나누고, 자녀분들과 함께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장용득 대표님과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연세암병원 발전과 유일한폐암연구소 연구활동을 위해 큰 뜻을 전해주시는 만큼,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암 연구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강 내 유해균 잡는 신소재 개발



최 성 환



차 재 국



만갈 웃커시

유해균 군집 형성 선택적 차단 염증성 질환 치료 소재로도 기대

치대 최성환(교정과학)·차재국(치주

과학)·만갈 웃커시(구강생물학) 교수 연구팀은 우리 몸 점막을 본떠 유해균의 군집 형성을 억제하고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

체재료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IF 29.1)' 최신호에 게재됐다.

우리 몸 피부와 입 안, 장 등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며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지만, 특정 유해균이 지나치게 늘어나 균형이 깨지면(미생물 불균형) 만성 염증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유해균을 줄이기 위해 항균·살균 물질을 사용했지만, 유해균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공생 미생물까

지 사멸했다.

연구팀은 우리 몸에서 미생물과 가장 많이 맞닿아 있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관이 점막이라는 점에 착안해 점막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모사한 생체재료를 개발했다. 점막은 단순히 몸 안쪽을 덮는 막이 아니라 액체와 고체 성질을 동시에 가진 독특한 표면 환경을 형성한다.

개발된 소재는 유해균이 서로 달라붙어 단단한 덩어리인 균막을 만드는 것을 방해한다. 균막이 형성되면 외부 공격에 강해지고 주변 조직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데, 연구팀 소재는 점막과 유사한 표면 환경을 만들어 이러한 군집 형성을 차단한다. 반면 공생 미생물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연구팀은 개발한 생체재료를 동물의 감염성 상처 부위에 적용해 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소재를 적용한 부위에서는 급성 및 만성 염증 반응이 크게 감소했다.

미생물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균은 줄어든 반면, 유익한 공생 미생물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또한 병원성 독성 물질 생성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도 크게 억제됐다.

중입자치료, 초기 폐암 넘어 4기 소수전이 폐암까지 확대

전신치료 병행 시 치료 성적↑ 방사선 노출 적어 고위험군 유리

연세암병원이 초기 비소세포폐암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중입자치료를 전이 병변 수가 많지 않은 4기 소수전이 폐암으로 치료 영역을 넓혔다.

최근 전이 병변이 많지 않은 소수전이 폐암은 항암제나 표적치료제와 같은 전신치료와 동시에 원발암과 전이된 암을 방사선치료로 제거하는 국소치료가 환자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다

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전신·국소 병행치료는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폐암에서 효과적이다. 해외에서 발표한 다기관 3상 임상연구에서 EGFR 표적치료제와 함께 원발암과 전이 병변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했을 때 암이 진행하지 않는 무진행생존기간이 12.5개월에서 20.2개월로 늘어났다. 전체생존기간 역시 17.4개월에서 25.7개월로 연장됐다.

국내에서도 연세암병원이 다기관 2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치료 전략을 확

인했다. EGFR 변이가 있는 소수전이 폐암 환자에게 3세대 표적치료제 레아지타닙과 암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체부정위적방사선치료를 함께 시행한 결과,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34개월이었다. 심각한 수준인 3등급 이상 방사선폐렴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입자치료를 소수전이 폐암의 새로운 국소치료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령이거나 폐기능이 떨어져 기존

방사선치료에 부담이 컸던 환자에게 새롭게 적용한다. 간질성폐질환이나 특발성폐섬유증을 동반한 환자는 방사선치료 후 폐에 염증이 생기는 방사선폐렴이나 기존 폐질환이 악화할 위험이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웠다. 중입자치료는 암세포에 강력한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주변 정상 조직에 전달되는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다. 정상 폐뿐만 아니라 심장과 식도 등 다른 장기도 해당한다.



의대 김경환 교수(방사선종양학)는 “우선 EGFR 변이 등 전신치료 효과가 우수하고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소수전이 폐암 환자를 중심으로 중입자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소년에 ‘의사 꿈’ 심다

정맥 림프관 기형 무상치료 치료비 9000만원 전액 지원

“이제 편안히 숨을 쉴 수 있어요. 세브란스에서 도와준 것처럼 저도 커서 의사가 돼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세브란스병원에서 정맥 림프관 기형 수술을 받은 탄도 군(7세)은 퇴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정맥 림프관 기형은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혈관과 림프관이 덩어리(낭종)를 만드는 질환으로, 신생아 약 1만명당 1명 꼴로 발생한다.

낭종은 크기가 큰 단일낭종이 형성되는 대낭성 유형과 작은 낭종이 큰

육과 신경, 혈관 사이로 퍼지는 미세낭성 유형으로 구분한다. 탄도 군은 미세낭성 유형이다. 미세낭성은 수술 난이도가 높고 완전 제거가 어렵다.

탄도 군은 생후 3개월 쯤 왼쪽 목 부위가 부풀었다. 하지만 월 약 125달러인 수입으로는 치료받기 어려웠다. 그 사이 병변은 턱과 목을 뒤덮었다.

탄도 군 소식은 해외의료선교 중인 동문 선교사를 통해 최재영 의대학장에게 전달됐고, 의대 김다희 교수(이비인후과학과)와 의료선교센터, 사회사업팀은 탄도 군 상태 확인 후 ‘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 대상자로 선정해 수술비 9000만원을 지원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탄도 군 상태는 병변이 턱과 목 정상 조직 깊숙이 퍼져 있었고, 기도를 압박해 호흡을 방해했다. 삼키고 씹거나 목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근육에도 광범위하게 침범해 있었다. 혀 움직임을 담당하는 설하신경과 입꼬리를 움직이는 안면신경은 물론 얼굴과 목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외경동맥까지 병변에 둘러싸여 있었다. 특히 후두가 정상 위치에서 크게 밀려 있어 기도삽관부터 쉽지 않았다. 탄도 군 기도를 확보하는 데 약 40분, 마취와 수술 준비에만 2시간이 걸렸다.

김다희 교수는 외형 변형을 최소화

하며, 기도 확보와 삼키고 말하는 기능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병변을 제거했다. 제거한 조직은 가로 15cm, 세로 10cm로 병변의 95%에 달했다. 허뿌리와 구인두에 파진 병변 일부는 후유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 일부 남겨뒀다.

탄도 군을 위해 이비인후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중심으로 소아혈액종양과, 소아중환자학과, 소아감염면역과가 협진했다. 소아혈액종양과는 남아 있는 병변 증식과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시뮬리무스 치료를 상담하고, 소아중환자학과는 수술 직후 집중 치료를 맡았다. 가래에서 균이 검출됐을 때는 소아감염면역과가 참여했다.



김다희 교수는 “국내에서는 대부분 영아기에 치료해 탄도 군 같은 사례는 드물다”며 “모든 병변을 제거하는 것보다 앞으로 먹고 말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탄도가 에스와티니로 간 뒤에도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남아프리카공화국 병원에 의무기록도 연계했다.

의대, 중앙감염병병원 설립 ·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협력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 감염관리 자문, 교육·연구 교류

의과대학이 2일 의대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추진단과 ‘중앙감염병병원 설립 및 교육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의대는 중앙감염병병원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의료·교육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대생들에게 공공보건의로와 감염병 분야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운영과 감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협력 ▲감염병 전문 교육과정 검토·자문과 전문 교육강사 양성 ▲의대 학생 임상 실습과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의대 학생들에게는 중앙감염병병원 임상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 기회

가 제공된다. 양 기관은 교육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공동 운영해 학생들이 감염병 대응과 공공보건의로 현장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 의료·교육 경험을 중앙감염병병원이 추진하는 감염병 전문 교육과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에 접목한다. 감염관리 체계 구축을

바탕해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 교육강사 양성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재영 의과대학장은 “중앙감염병병원의 성공적인 건립과 교육 체계 구축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의대생 임상 교육과 정기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공공보건의로와 감염병 분야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시 자율학습 위한 AI 플랫폼 개발

전문의 수준 채점 정확도 테스트 참여 학생 전원 국시 합격

의대 박채령 교수(응급의학), 유승찬 교수·김민성 연구원(의생명시스템정보학), 의학과 송지우 학생이 국시 자율학습을 위한 음성 기반 AI 모의 진료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엔피제이 디지털 메디슨(npj Digital Medicine, IF18)'에 게재됐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는 '임

상수행능력평가(CPX)'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55개 질환 증상 환자를 제한된 시간 내에 진료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환자를 대신해 일정한 증상과 상황을 재현하도록 훈련받은 '표준화 환자'가 활용된다.

이때 표준화 환자를 섭외하는 등 비용과 인력 문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싶을 때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연구팀은 음성 기반 AI 플랫폼 'CPX-

MATE'를 자체 개발했다. CPX-MATE는 ▲연습 상대가 없어 학생이 AI를 대상으로 직접 대화하며 연습할 수 있는 가상 표준화 환자 기능 ▲학생들끼리 역할극을 할 때 대화를 실시간으로 청취해 이를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실시간 평가 기능에 중점을 뒀다.

91차 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던 의대 학생 중 연구 참여 학생 42명이 시



박 채 령



유 승 찬



김 민 성



송 지 우

험 준비 2개월 동안 총 3042회, 누적 745.1시간 동안 CPX-MATE를 사용했다. 1인당 사용 평균은 66.5회, 16시간에 이른다.

학생의 모의 진료 연습을 두고 CPX-MATE가 채점한 결과와 실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채점한 결과는 거

의 같게 나타났다. AI 플랫폼 평가 신뢰성도 높았다. CPX-MATE로 두 차례 모의시험 본 학생들은 첫 번째 성적보다 두 번째 성적이 평균 167점 높게 나타나 반복 학습 효과도 확인됐다.

그 결과 CPX-MATE를 사용한 42명은 전원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요관 스텐트 난제 해결할 차세대 표면 기술 개발



의대 구교철 교수(강남비뇨의학과),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서정목 교수, 조예진·이연택 연구원 연구팀은 손상된 윤활층을 스스로 복원해 세균과 결석 침착을 장기간 억제하는 자가 재생 윤활

요관 스텐트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머티리얼즈 투데이 바이오(Materials Today Bio, IF 11)'에 게재됐다.

요관 스텐트는 요로결석 수술이나 요관 협착, 종양 등으로 인해 소변 배출로가 막힌 환자에게 삽입하는 필수 의료기이다. 그러나 장기간 체내에 머물 경우 스텐트 표면에 세균과 단백질이 부착되고, 칼슘과 마

그네슘 등 무기질이 엉겨 붙으면서 단단한 결석이 형성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실제로 요관 스텐트 유치 기간이 6주를 넘으면 약 57%, 12주를 초과하면 약 76%의 환자에게서 결석 침착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심한 통증과 요로 감염, 신장 기능 저하 등 합병증이 발생하며, 주기적으로 수술을 통해 스텐트를 교체해야 해 환자들의

신체적·경제적 고통이 컸다.

연구팀이 개발한 '플루이드(FLUID)' 스텐트는 의료용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 윤활제를 저장하는 구조다. 마찰로 스텐트 표면이 손상되면 윤활제가 표면으로 노출돼 표면에 미끄러운 층을 다시 형성한다.

플루이드 스텐트는 기존 상용 제품 대비 표면 마찰을 약 2배 감소시켰으며, 비코팅 스텐트 대비 초기 세균 부착을 94%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과 마그네슘 기반 결석

형성 또한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실제 환자 요로 환경과 유사한 돼지 전임상 모델 실험에서도 8주 동안 스텐트 개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며, 결석 침착과 주변 조직 염증 반응을 유의미하게 낮추며 장기적인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한편, 연구팀은 의료기기 전문기업(쥬링크솔루션)과 협력해 해당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요관 스텐트 외에도 요도 카테터 등 장기 유치가 필요한 다양한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박영년 교수, WHO 간암 진단 기준 개정 주도

IAP 총회 기초강연에도 나서



의대 박영년 교수(병리학)가 세계암 진단 표준으로 활용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종양분류 개정에 참여해 간암 최신 진단 기준을 정립했다.

박영년 교수는 최근 발간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WHO 소화기 종양 분류(Digestive System Tumours)

제6판에서 간암 부문 대표 저자로 참여해 간암 분류와 진단 기준 개정을 주도했다. WHO 소화기 종양 분류는 WHO 블루북(Blue Book)으로 불리며 암 정의와 분류, 진단 기준 등을 제시하는 국제 표준 지침이다.

제5판 전문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던 박 교수는 이번 제6판에서는 간암 분자·병리학적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아형 분류와 각 아형 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6판에서는 간세포암을 종양 형태뿐 아니라 유전자 변이와 단백질 발현 등 분자적 특성까지 종합해 주요 아형

으로 구분하고 각 아형 진단 기준을 표준화했다. 특히 암세포 성장 형태와 종양 내 면역세포·혈관의 특징 등을 반영해 공격성과 예후가 서로 다른 간세포암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다음달 열리는 '제36차 국제병리학회 총회(IAP 2026)'에서 기초강연(Plenary Lecture)에 나선다.

박 교수는 이번 기초강연에서 간암 분자병리학적 특성과 종양 미세환경을 중심으로 그동안 수행해 온 연구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미래 간호과학자 지원 방향 논의

간호대학이 지난 달 21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차세대 간호

과학자 양성을 위한 '글로벌 간호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한국, 중국, 홍콩, 인도, 일본, 몽골, 싱가포르, 대만, 미국, 베트남 등 10개국 간호계 리더들이 참여해 간호학 분야 박사후연구자 핵심역량과 경력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간호대 김신혜 교수가 국내 박사후연구자 역량과 진로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문화 협업과 재정·자원관리, 연구 수행 능력이 주요 역량으로 제시됐으며, 이들의 성장을 위해 충분한 연구 시간과 멘토링, 연구 네트워크, 연구비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아시아 주요 대학 관계자들이 차세대 연구자 육성 전략을 공유했다. 이현경 간호대학장은 국내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연구 독립성과 고급 연구방법론, 연구비 확보, 국제협력, 연구 리더십과 멘토링을 주요 역량으로 제시했다.

페이산차이 타이베이과학기술대학 학



장과 웬타오 저우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는 충분한 연구시간과 멘토링, 초기 연구비와 중장기 연구계획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 후 푸단대학교 학장과 와이 톡 치엔 홍콩중문대학교 학장은 연구팀 참여와 연구비 신청,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 다양한 경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와 데이터 과학, 디지털 헬스, 국제·학제 간 협력을 미래 핵심역량으로 꼽았다.

시카고 일리노이대학교 아일린 G. 콜린스 간호대학장과 예모리대학교 린다 A. 맥컬리 명예간호대학장이 이끈 종합토론에서는 안정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연구성과를 보건의료정책과 현장 변화로 연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가별 지원 현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 필요성도 제시됐다.

시카고 일리노이대학교 김미자 명예 간호대학장은 차세대 간호과학자 육성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의대, 리서치 엑셀런스 데이 개최

의과대학이 지난 달 26일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학기 연세의대 리서치 엑셀런스 데이'를 개최했다.

행사 1부에서는 2026년 상반기 의대 연구 부문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한빛사 논문 기준 논문 게재 실적과 NEJM, Nature Medicine, AJRCCM 등 최고 수준 저널 논문 실적을 소개하고, 연구비·특허·기술이전·협약 실적 현황과

연구 부문 주요 소식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대학원생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널리 공유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대학원 우수학술상 시상식'을 처음으로 리서치 엑셀런스 데이와 연계해 개최했다. 대학원 의학과와 의과학과 석·박사과정 학생 중 연구실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 상장과 상



금을 수여하고 연구 성과를 격려했다.

2부에서는 식사와 함께 게임, 퀴즈,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소아청소년암 바로 알아요

**‘소아청소년암 완치자와 함께 희망 나누기’ 캠페인 개최
완치자·의료진 함께 시민 만나
소아청소년암 편견 해소 나서**

연세암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가 5일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스타광장에서 소아암NGO한빛과 함께 제8회 소아청소년암 완치자와 함께 희망 나누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월 국제 소아암 인식

개선의 달을 맞아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고, 치료 중인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아청소년암 완치자 자조 모임 ‘기린아’와 ‘꿈드림’ 회원 10여명을 비롯해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만났다.

올해는 특별히 연세암병원 병원학교 코너가 새롭게 마련됐다. 소아청소년암을 치료받는 동안 정상적인 등교와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이 치료 중

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병원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과 병원학교 역할을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치료 중인 아이들에게 치료뿐만 아니라 배움과 성장, 일상의 지속 역시 중요하다는 점도 알렸다.

행사장에서는 소아청소년암 완치자 이야기를 소개하고 인식 개선 애니메이션과 병원학교 영상을 상영했다.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이 그린 ‘꿈을 꾸는 스케치북’ 작품도 전시해 치료 과정에서도 꿈을 이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시민들이 치료 중인 환자에게 응원



의 글을 남기는 ‘희망 메시지’ 행사도 진행했다. 현장에서 작성한 메시지는 연세암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퀴즈와 SNS 참여 행사 등도 함께 열렸다.

연세암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는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이 치료를 넘어 학교와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치료와 성장,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완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간호대, 일본·대만 대학과 글로벌 협력 확대



간호대학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일본 성누가대학교와 대만 타이베이의학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인바운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양 대학 학부생 총 8명이 참여해 간호대 소개 및 캠퍼스 투어, 전공 특강, 임상 현장 견학, 학생 교류 활동 등에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한국 간호교육과 임상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교류를 통해 각국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교육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며 국제적 시야를 넓혔다.

성누가대학교와는 2003년 교류 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타이베이의학대학교와는 2024년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번이 첫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

다. 협약에 기반해 현재까지 이어온 양교 협력 관계가 실제 학생 교류로 이어졌고 향후 교육·학술 분야의 다양한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본 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한국 대학 생활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좋았으며 특히 세브란스병원 견학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의료 환경을 비교해 볼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전했다.

이현경 간호대학장은 “학생 교류는 서로 다른 간호교육과 보건의료 환경을 이해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해외 협력 대학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 학술 분야 글로벌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몽골 의료진 대상 내시경 시술 지도 및 강의 진행

의대 이상길·박준철 교수(내과학)는 최근 몽골 국립의과대학교 중앙병원을 방문해 내시경 시술 지도와 고난도 내시경 기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의료원이 보유한 의료 역량과 전문성을 직접 공유하는 자리였다. 두 교수는 실제 내시경 시술 현장에서 현지 의료진 시술을 지도하고, 고난도 내시경 기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몽골 의료진 술기 제고를

도왔다.

양 기관은 장기간 이어온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몽골 의료 역량 강화와 임상 및 학술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한편, 의료원은 1983년 몽골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3년 몽골 국립의과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의료진 연수, 학



술 교류 등 협력 활동을 30여년간 이어오고 있다.

‘엄마 아빠 회사에서 CPR 배워요’

인재개발팀, 교직원 자녀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성료

인재경영실 인재개발팀이 지난달 10일 세브란스병원 2층 임상교육실에서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했다.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대학생까지 총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교직원 자녀들이 응급상황에 대한

심정지 인지, 호흡 확인, 가슴 압박 소생술,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중학생 A군은 “부모님이 근무하시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어 자랑스러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교직원 자녀들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익히고, 생명 존중과 심폐소생술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용인, AI 에이전트 플랫폼 ‘Y-Aid’ 오픈

**폐쇄망 활용해 정보보안 강화
업무 목적에 맞춰 AI 에이전트
활용 지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원내 폐쇄망 환경에서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AI 에이전트 플랫폼 ‘Y-Aid’를 오픈했다.

Y-Aid는 환자경험, 병원행정, 임상연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병원 지침·매뉴얼 등 내부 지식과 최신 의학 문헌을 LLM과 연계해, 교직원이 업무 목적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업무 지원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은 ‘AI-Native Hospital’로 전환한다는 의료원의 중장기 AI 전환(AI) 실행 전략의 일환으로 구축됐으며,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의료산업센터가 인프라 확충과 설계·개발을 주도했다.

병원은 지난해 12월 베타 버전으로 원내 내규 에이전트를 제작한 이후, 핵심 기능과 서비스를 고도화해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에 1차로 오픈한 서비스는 ▲의료기관평가 에이전트 ▲전산장애 대응 에이전트 ▲의학 문헌 검색 에이전트 등 3종이다.

의료기관평가 에이전트는 평가 관련 내규·지침을 조회하고, 질의에 대한 답

변을 제공해 의료기관평가 준비 업무를 지원한다. 전산장애 대응 에이전트는 부서별 전산장애 대응 지침과 정보통신기술(ICT) 대응 절차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의학 문헌 검색 에이전트는 의학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펄메드(PubMed)에서 관련성이 높은 의학 논문을 검색해 요약 정보와 함께 제시한다.

특히 Y-Aid는 외부와 분리된 폐쇄망 환경에서 운영되는 프라이빗 LLM을 활용해 정보보호와 보안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민감한 의료 정보와 내부 업무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병

원 정보시스템 및 다양한 업무 도구와 연계하고 새로운 AI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해 설계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향후 간호사 업무 매뉴얼, 방사선 피폭 대응 절차, 임상연구 관리 지침, 문서 작성 지원 등으로 AI 에이전트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분야 지식을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온톨로지(Ontology) 기반 에이전틱 AI를 구현하고, API·RPA 등 다양한 업무 도구와 연계도 확대할 예정이다. AI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AI 가드레일’ 역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영 디지털의료산업센터 소장은



“이번 AI 에이전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의료 현장의 다양한 업무에 AI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AI·디지털 전환 역량을 고도화해 디지털 혁신 병원의 표준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 디자인 씽킹 워크숍 결과 공유회

도출 AI 활용 아이디어 소개 진료·업무 효율화 방안 모색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0일 병원 4층 대강당에서 '2026 디자인 씽킹 워크숍 결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7월 열린 디자인 씽

킹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AI 전환(AI) 추진을 위한 교직원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워크숍에서는 경험 중심성·운영 효율성·임상 우수성 등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문제와 개선 필

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공유회에서는 당시 도출된 아이디어 가운데 대기시간 실시간 안내, 외래 예약 최적화, 처방 안전성 강화, 낙상 모니터링, 음성인식 진료기록 작



성, 의약품·소모품 재고관리 등 환자 경험 개선과 진료·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이 소개됐다.

강남, 제3회 소아청소년센터 심포지엄 성료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센터가 지난달 29일 대강당에서 '제3회 소아청소년센터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신 의료 동향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소아청소년센터 전문 진료 역량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은 'AI와 디지털 헬스케

어'를 주제로 의대 채현욱 교수(강남소아청소년과)가 좌장을 맡았다. 네이버 의료혁신센터 차동철 센터장이 '의료 현장에서의 AI 도입 사례'를, 의대 나지훈 교수(강남소아청소년과)가 '소아신경 질환 진단 및 관리를 위한 AI 기술의 임상 적용'을, 차태현 교수(강남소아청소년과)가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AI 기반 모니터링과 예측 시스템'을 주제

로 발표하며 소아청소년 진료에 적용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두 번째 세션은 '생애주기별 이행의료'를 주제로 의대 안수민 교수(강남소아외과)가 좌장을 맡았다. 의대 이인하 교수(강남산부인과)가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질환과 성인기 이행, 최영하 교수(강남소아청소년과)가 '소아내분비



질환의 성인기 이행, 차대정주령 교수(강남 치과교정과)가 '소아 교정 치료의 성인기 이행, 의대 은영민 교수(강남소아청소년과)가 '소아심장 질환의 성인기 이행'을 주제로 강연하며 소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연속성 있는 의료 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실제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강남, 정전·전산장애 재난모의훈련 진행

강남세브란스병원이 1일 병원 대강당에서 정전·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성준 의료정보부실장, 정성필 재난준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6월 29일 강남 지역 일대 정전으로 인해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코드 화이트' 상황을 겪은 바 있다. 평소 전산장애 대비 훈련을 이어온 병원은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형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이번 재난모의훈련을 마련했다.

이날 훈련은 정전으로 OCS(처방 전달 시스템) 프로그램이 멈춰 지면이 빚어진 상황을 가정했다. 코드 화이트 발령 전파를 시작으로 수동 접수, 처방 전환, 환자 안내, 안전 확보, 비상 전력 가동 및 시스템 복구 소요 시간 단축 여부까지 단계별 대응 역량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진료 도중 정전으로 불편을 겪는 환자 응대 상황을 구현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 병목 구간과 미비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보완점을 짚어나갔다.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 "지난 6월 발생한 코드 화이트는 우리에게 철저한 점검의 필요성을 알려준 계기였다"며 "여러 외부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진료시스템은 안정적으로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원인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 교원 창업 기업 네트워킹 강화 나서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가 지난달 5일 미국 AI 제약사 포메이션바이오(Formation Bio)와 포트폴리오 기업 간 상견례를 마련했다. 포메이션바이오는 2016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AI 기반 제약사다. 임상 후보물질을 인수한 뒤 자체 AI 플랫폼으로 임상시험 설계와 운영을 효율화해 개발 속도를 높이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만성 손증진 치료제(gusacitinib)를 사노피에 최대 5억 4500만유로 규모로 기술이전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상견례는 의료원 교원 창업기업이 보유한 신약·진단 프로세스를 포메이션바이오에 소개하고, 임상 개발

협력과 기술이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송영구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 대표와 김민지 포메이션바이오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의 인사를 시작으로, 의료원 교원 창업기업 4개 사 기술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 기업들은 계열 내 최초 항암 합성신약 및 표적단백질분해제,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 기반 퇴행성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대뇌피질 신경가소성 강화 기전의 뇌질환 치료제, 마이크로RNA 기반 난치성 질환 조기 진단 기술 등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여 기업들은 후보물질 기술이전과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수한 교원 창업 기술을 글로벌 혁신 기업과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포트폴리오 기업의 해외 파트너십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올리버 R. 에비스 박사 서거 70주기

최재영 의과대학장, 김세훈 동은의학박물관장이 지난달 31일 올리버 R. 에비스 박사 서거 70주기를 맞아 세브란스병원 앞 동상에 헌화했다.

김기웅 아이투비파트너스 대표 3억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김기웅 아이투비파트너스 대표가 최근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으로 3억원을 전했다.

김기웅 대표는 “병원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받기 어려운 분들이 여전히 많고, 특히 성인이나 고령 환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후원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

야기를 들었다”며 “도움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세브란스를 더욱 신뢰하게 됐고, 이러한 믿음이 나눔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기웅 대표는 2023년 후원을 시작으로 경제적 형편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사회사업후원금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베이직처치 3억원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빛담)

베이직처치(담임목사 조정민)가 최근 B to D(Birth to Death)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빛담) 3억원을 후원했다.

B to D 캠페인은 의료원과 교계가 함께 출생(Birth)부터 죽음(Death)에 이르기까지 의료 시작과 끝에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후원금은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를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완화의료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

정이다.

베이직처치는 “치료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 존엄을 지키고 가족 곁을 함께하는 일 역시 의료가 감당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후원이 완화의료에 필요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고, 남은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데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직처치는 2013년부터 의료선교와 환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의료원에 전한 누적 후원금은 12억 7000만원을 넘어섰다.

김연주 디자이너, 지하영·지유정 후원자 1억 5000만원

의료원 발전기부금

김연주 디자이너와 지하영·지유정 후원자가 의료원 발전기부금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약정했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연주 디자이너, 지하영·지유정 후원자와 금기창 의료원장, 윤영남 대외협력처장, 김진아 발전기부금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연주 디자이너는 “세브란스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이번 후원이 의료원 발전과 더 좋은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의료원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소중한 후원을 약정해 주신 김연주 디자이너와 지하영·지유정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세 모녀의 귀한 뜻이 환자들을 위한 더 나은 의료와 미래 의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오영선 미주동창 10만 1198달러



의대 신축기부금

오영선 미주동창(의대 65년 졸)이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으로 10만 1198달러(약 1억 4306만원)를 후원했다.

오영선 동창은 “의과

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과정에 동문으로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새롭게 마련될 교육 공간이 후배들이 더 큰 꿈을 키우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영선 동창은 누적 2억 7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기부했다.

Class of 1962 10만 860달러

의대 1962년 동기 장학기부금

의과대학을 1962년에 졸업한 한 미주동창(Class of 1962)이 최근 의대 1962년 동기 장학기부금으로 10만 860달러(약 1억 4259만원)를 보내왔다.

이번 후원금은 후배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과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

될 예정이다.

기부금을 전한 미주동창은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 이름으로 후배들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에 부담을 느끼는 후배들이 걱정을 덜고 배움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병윤 미주동창 10만달러

의대 신축기부금

이병윤 미주동창(의대 66년 졸)이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으로 10만달러(약 1억 4137만원)를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의과대학 신축을 통해 미래 의료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윤 동창은 “연세의대에서 배우고 성장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후배들이 신축 의대에서 배우며 세계 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번 후원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병준 The Bai Foundation 이사장 10만달러

간호대 이규희 연구기부금·장학기부금

배병준 The Bai Foundation 이사장이 최근 간호대학 이규희 연구기부금 6만 6680달러(약 9600만원)와 이규희 장학기부금 3만 3120달러(약 4754만원) 총 10만달러를 후원했다.

배병준 이사장은 “소중한 아내 이규희 동문이 생전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의 뜻을 이어갔던 만큼, 간호대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

내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과 연구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랑스러운 간호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배병준 이사장은 고 이규희 동문(간호대 59년 졸)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24년부터 The Bai Foundation을 통해 간호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3억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후원했다.

오분희 프린세스주얼리 회장 1억원

강남세브란스 새병원 건립기부금

오분희 프린세스주얼리 회장이 최근 강남세브란스 새병원 건립기부금 1억원을 후원했다.

병원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오분희 회장과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조시현 진료부원장, 윤영훈 발전기부금사무국장, 김충진 원목실장 등이 참석했다.

오분희 회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새병원 건립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후원금이 새병원 예배실 조성에 사용되길 희망한다. 새병원이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의료선교 기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용욱 병원장은 “오분희 회장님처럼 강남



세브란스병원을 가족같이 생각해주시는 후원자님들이 있기에 새병원 건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새병원이 의료선교 기관은 물론, 대한민국 최고 병원으로 자리잡아 후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분희 회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 THE 미래 발전후원회 위원이자 강사모(강남세브란스병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을 역임 중이다.

손연재 리프스튜디오 대표 1억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손연재 리프스튜디오 대표가 최근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으로 1억원을 후원했다.

손연재 대표는 “아이 두 돌을 맞아 가족에게 뜻깊은 날을 나눔으로 기념하고 싶었다”며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이번 후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연재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이 첫 돌을 기념해 고위험 산모태아 통합치료센터와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총 1억원을 후원하는 등 가족의 소중한 순간마다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후원을 통해 손 대표의 의료원 누적 기부금은 4억원에 달한다.

동문회소식

서울시동창회 골프대회 성료

서울시동창회 골프대회가 지난달 23일 경기도 여주 더시에나벨루토에서 동문과 가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박종환·윤인대 감사와 이진화 연세대학교 여자총동문회장, 이용주 의과대학 여동창회장이 함께 했다. 특히 이재범 총동문회장과 황규석 서울시사회장이 금일봉을 전달하며 참가 동문들을 격려했다. 대회는 실력을 겨루는 경기조와 동

문 간 친목과 교류에 중점을 둔 친선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기조에서는 김정민 동문(원주 99년 졸)이 82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친선조 메달리스트에는 남자부 홍현준 동문(02년 졸)이 81타, 여자부 서진학 동문(93년 졸) 배우자 서나경 씨가 85타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신페리오 박식에서는 제진호 동문(98년 졸)이 69타로 남자부 우승을, 김현영 동문(92년 졸)이 72타로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부문별 시상에서 룡기스트는 남자부 이영대 동문(원주 97년 졸)이 257m, 여자부 박승교 동문(07년 졸)이 160m로 수상했으며, 니어리스트는 남자부 탁우현 동문(07년 졸)이 1m, 여자부 전동찬 동문(94년 졸) 배우자 문원기 씨가 5m를 기록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다바디상은 남자부 한동우 동문(83년 졸)과 여자부 최순미(92년 졸) 동문이 각각 버디 1개로 수상했으며, 디파상은 서진학 동문(93년 졸)과 문성옥 동문(92년 졸) 배우자 지우리 씨에게 돌아갔다.

의대 총동문회 지역 동창회 모임

구로구동창회는 지난달 25일 구로구청 근처 갈비명가에서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희선 회장을 비롯해 정규식 총무, 이장훈, 한동우, 고강희 고문 등 구로구동창회 동문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시동창회에서는 홍주의 회장과 전동찬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해 구로구 동문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영등포구 동창회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한우일번지X규이치에서 동문모임을 갖고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모임에는 박윤규 영등포구 동창회장과 전희종 총무, 이용주 여동창회장 등 12명의 영등포구 동문들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시동창회에서 도 홍주의 회장을 비롯해 정원석 동작구 동창회장, 전동찬 부회장, 노준래 총무이사가 참석해 영등포구 동창회의 활성화를 응원하고 동문 간 교류를 이어갔다.

호반그룹 1억원

의대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류마티스내과), 연세암병원 발전기부금

호반그룹이 최근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류마티스내과) 5000만원과 연세암병원 발전기부금 5000만원을 후원했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호반그룹 김대현 기획총괄사장과 김민형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금기창 의료원장, 이상길 연세암병원장, 윤영남 대외협력처장, 박용범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대현 기획총괄사장은 “이번 후원이 류마티스 질환과 암 치료 분야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 분야를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의료원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호반그룹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후원금이 의료 연구 역량 강화와 환자 중심 진료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과 호반정학재단은 2019년부터 의료원과 인연을 이어오며 의대 교육환경 개선과 어린이병원 환자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후원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로 총 후원금은 11억 5000만원에 달한다.

박효맹, 곽문자 부부 1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박효맹, 곽문자 부부가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1억원을 후원했다.

병원장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박효맹, 곽문자 부부와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윤영훈 발전기금사무국장, 의대 오주영 교수(강남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참석했다.

박효맹 후원자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뜻깊은 기부를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환자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욱 병원장은 “박효맹, 곽문자 후원자님 같



이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사랑하는 마음 덕에 우리 병원이 3년 연속 세계 100대 병원으로 선정됐으며, 국내 6위 병원을 유지하고 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발전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박효맹, 곽문자 후원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소중한 기부를 시작

노원식 미주동창 7만달러



의대 신축기부금

노원식 미주동창(의대 67년 졸)이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으로 7만 달러(약 9896만원)를 후원했다.

노원식 동창은 “멀리

미국에 있지만 늘 모교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새로운 의과대학이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연세 의학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노원식 동창은 누적 2억 1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전했다.

최창우 후원자 5000만원

재활병원 발전기부금

최창우 후원자가 최근 재활병원 발전기부금으로 5000만원을 후원했다.

최창우 후원자는 “항상 최선의 치료를 위해 힘써주시는 조성래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했다”며 “연세대학교 동문

이자 환자 가족으로서 재활병원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고, 이번 후원금이 재활병원 주차장 등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환경개선에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창우 후원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의료원과 소중한 첫 인연을 맺었다.

유튜버 유트루, 에스쁘아 3000만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뷰티 유튜버 유트루 후원자와 뷰티 브랜드 에스쁘아가 최근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여성 암환자들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유트루 후원자 및 에스쁘아 관계자와 윤영남 대외협력처장, 김진아 발전기금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유트루 후원자는 “에스쁘아와 협업을 통한 수익금을 기부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병을 이겨내고 계신 환자분들께서 너



무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밝은 웃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기석 에스와이 회장 5000만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암센터 건축기부금

김기석 에스와이(주)회장이 최근 용인세브란스병원 암센터 건축기부금으로 1억원을 약속하고, 5000만원을 먼저 전했다.

김 회장은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뜻깊은 기부를 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한 마음”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 기부금이 암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분들께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빛담아이 제3회 사별가족모임 ‘별빛우리’ 진행

연세암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빛담아가 11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사별 가족 모임 ‘별빛우리’를 개최했다.

별빛우리는 ‘별이 되어 빛나는 아이들, 그 빛을 담고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의미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후 자녀와 사별한 가족들이 만나 아이를 함께 기억하는 자리다. 2024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를 맞았으며, 이날에는 사별한 아이들 부모와 형제자매가 참석했다.

가족들은 서로를 소개한 뒤, ‘기억나무’ 그래픽을 영상으로 만든 오프닝 영상을 함께 감상했다. 기억나무는 소중한 사람과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관계가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어 참가자들은 ‘빛’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 임했다. 아이 성격, 좋아했던 것, 함께했던 순간 등 간직하는 기억을 LED 등으로, 사별한 형제자

매 기억과 자신에게 남아 있는 의미를 ‘빛’에 담아 무드등으로 표현했다.

가족들은 완성된 빛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그 안에 담긴 아이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줬다. 아이가 좋아했던 것, 가족이 기억하는 모습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나누며 서로의 아이를 알아갔다. 이어 서로 나눈 아이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추모 시간을 끝으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한 참석자는 “비록 일 년에 한번이지만 일 년치 위로와 진한 사랑을 받고 돌아가는 것 같아 깊은 여운이 남는다”고 전했다. “우리 아이를 기억해 주는 곳이 있다는 것이 좋다”며 아이를 함께 기억해 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가족도 있었다.

빛담아는 앞으로도 매년 가족들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간호대, 임상추론 시뮬레이션 이괄 전문 지도자 양성



간호대학 윌즈 시뮬레이션센터는 최근 6주간 ‘Y-Champion: 임상추론 기반 시뮬레이션 챔피언십’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시뮬레이션 지도자를 훈련하고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참가자들은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실제 시뮬레이션 구동을 수행했다.

올해는 총 13명 교육생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25일 진행된 수료식을 통해 참여 소감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운영 5년째를 맞는 교육은 매년 최신 지견과 현장 요구를 반영해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푸른 고요에 우뚝 서다

저자 | 의대 김기준 교수(마취통증의학)



의대 김기준 교수(마취통증의학)가 지난달 20일 수중시화집 ‘푸른 고요에

우뚝 서다’를 펴냈다.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과 사물에 대한 예의’에 이은 세 번째 시집이다.

김 교수는 30여 년간 국내를 비롯해 필리핀, 몰디브, 인도네시아, 팔라우, 멕시코,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 세계 여러 바다를 찾아 수중에서 마주한 풍경과 생명에 대한 경험을 글과 시로 기록해왔다.

이번 시화집에는 바닷속에서 얻

은 경험과 생각을 담은 수중시 82편과 사진작가 최성준의 수중 사진이 함께 실렸다. 두 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다이빙을 하며 인연을 맺은 뒤 바다에 대한 관심을 공유해왔다.

김 교수는 2021년 수중예세이집 ‘그 바닷속 고래상어는 어디로 갔을까’를 출간한 바 있다. 이번 시화집은 당시 수록했던 시와 사진을 선별하고 새로운 작품을 더해 수중시와 수중사진으로 구성했다.

김 교수는 오랜 시간 바다를 누비며 직접 보고 느낀 자연과 생명의 모습을 시로 기록하고 있다. ‘푸른 고요에 우뚝 서다’에서는 바닷속에서 만난 생명과 풍경, 자연을 바라보며 느낀 생각을 시와 사진으로 전한다.

[지혜/192쪽/20,000원]

마음은 사회를 닮는다

저자 | 의대 정선재 교수(예방의학)



우울과 불안,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오랫동안 개인 기질이나 양육한

경, 생물학적 취약성 결과로 설명됐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은 가족과 또래,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시대 영향을 함께 받는다. 인간은 정신질환을 개인 문제에서 인구집단과 사회의 문제로 확장해 바라보는 ‘정신역학’ 관점을 소개한다.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불평등과 차별, 노동과 경제적 위기, 재난과 집단 트라우마, 자살과 예방정책

등을 국내외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풀어낸다. 저자는 정신건강 문제 분포와 원인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치료를 넘어 사회적 환경과 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예방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공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독자에게도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는 정신역학 입문서다.

[서울의학서적/338쪽/30,000원]

1000~3000만원 기부

의료원

- 김용배, 김종희 후원자 발전기부금 2000만원
- 이금옥 후원자 발전기부금 2000만원

의과대학

- (재)유한재단 연구기부금-유한재단 1000만원
- 강태성 동문(치대 01년 졸)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류마티스내과 1000만원
- 김경희 후원자 신축기부금 1000만원
- 박숙자 후원자 진단검사의학교실 발전기부금 2000만원
- 박신혜 박신혜유과의원 원장(의대 96년 졸) 신축기부금 1000만원
- 윤병부 연세대 명예교수(의대 67년 졸)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 1000만원
- 이문형 연세대 명예교수(의대 86년 졸) 신축기부금 1000만원
-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신축기부금 1000만원
- 이민주 후원자 각막이상증연구소 기부금 1000만원
- 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의과대학 세브란스 미주동창상 1839만원

치과대학

- (재)신흥연승학술재단 장학기부금 1600만원
-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동문 발전기부금-110주년 미래기금 1000만원
- 지혁 미소아름치과 원장 발전기부금-110주년 미래기금 1000만원
- 치과대학동문회 장학기부금 1000만원
- 김도현 교수(보존과학) 발전기부금-110주년 미래기금 1500만원
- 이보라 교수(치의학교육학) 발전기부금-110주년 미래기금 1500만원

간호대학

- 간호대 최모나 교수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윤송조창석문화재단 장학기부금 1060만원
- 이재연 (주)명인교육 회장(간호대 80년 졸) 발전기부금 1000만원
- 간호전문대학원 이태화 교수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전인영 메플재단 이사 발전기부금 1000만원

보건대학원

- 지선하 보건대학원장 발전기부금(2010프로젝트) 2000만원
- 보건대학원 권준욱 교수 발전기부금(2010프로젝트) 1000만원
- 오한진 후원자 발전기부금(2010프로젝트) 1000만원

세브란스병원

- 고 이상오 후원자 신경과 발전기부금-파킨슨병운동질환 1000만원
- 구인애 후원자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 박홍빈 후원자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 영웅시대 밴드모임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 조종현 우신모터스 대표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 황금누룽지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 KT&G 복지재단 발전기부금 2000만원
- 김지영 후원자 발전기부금 1000만원
- 류동열 연세정성내과의원 원장(의대 95년 졸) 신장내과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신미석 후원자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윤태훈 고려신용정보(주) 대표 호흡재활센터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장승은 후원자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 정경순 후원자 연구발전기부금 1000만원

용인세브란스병원

- (주)보라테크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치과대학병원

- (재)현우문화재단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은선진 후원자 발전기부금 1000만원

연세암병원

- 창천교회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빛담 1736만원

어린이병원

- BTS ARMY France 소아정신과 발전기부금-민윤기 아티스트 1548만원
- 메디바이옴(주) 소아소화기영양과 발전기부금 1000만원

재외 동창 기부

재외 동창들의 기부 소식은 미주동창회와 UB(United Board)를 통해 전달되는 기부금으로 별도 코너를 마련해 소개합니다.

의과대학

- 고 정일웅 미주동창(의대 66년 졸)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 \$100000
- 배정현 미주동창(의대 66년 졸) 신축기부금 \$100000
- 원종만 미주동창(의대 74년 졸) 신축기부금 \$100000
- 정인국 미주동창(의대 72년 졸) 신축기부금 \$100000
- 허정 미주동창(의대 62년 졸)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연구기부금-홍준식 \$1000

간호대학

- 이윤희 미주동창(간호대 60년 졸) 장학기부금 \$5000
- 주영자 미주동창(간호대 66년 졸) 발전기부금(120프로젝트) \$100000

어린이병원

- 허정 미주동창(의대 62년 졸) 소아내분비내과 발전기부금 \$1000